심안의 내 선장의 주장자를 딱 쥐어야 한다

☞ 21면에서 계속

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나도 같이 해져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서 열질 않고 몰라라 한다면 나도 몰라라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면 나도 거기 같이 해지죠.

내가 옛날에 말했듯 임제 스님이 어떠한 선승한테 묻기를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도 너에게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네 주장자를 오히려 뺏어올 것이니라." 제가 제 주인을 챙기지 못하니까 집은 항상 비어서 벌레가 끼고, 그냥 오고 가는 행인들이든 벌레든 할 거 없이 빈집이니깐 들어와서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니까 그 집은 망가지게 돼 있죠.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세세생생의 그 마음도 망가진 마음 그대로, 차원이 아주 낮은 마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다음에 태어날 때도 또 그 모습으로 태어나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이게 그냥 '저 스님이 저 말로만 저러지.' 그러지만, 이것을 당해 보고, 그렇게 해 보고 그렇게 모든 거를 본다면 아마 그렇게 말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하고 보고…. 그런데 옛날에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한 거 말입니다. 왜 잣나무만 부처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어느 거 하나 공안 아닌 게 없고, 법안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고, 생명 없는 게 하나도 없으니깐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고, 그네들에게는 우리가 스승이고 서로서로의 스승이란 말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얕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모르면, 차원이 낮으면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건 낮은 중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모든 모습도 이 세상에 나오고 모든 모습이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전부 거기에서 그 빛이 풍기는 겁니다.

둘로 보지 않으려면

질문 일체를 둘로 보지 말라 하시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조차도 한마음이 안 되는데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답변 무조건 믿는 거, 못났든 잘났든 무조건 자기를 믿는 거, 내가 조금 믿다가 부딪치면 '이거 뭐, 이렇게 찾아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벌렁 나자빠지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그냥 자기가 지금 끌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못 믿는 겁니까? 잘되기만 하면 좋다고 '주인공, 주인공' 하다가 안 되면 '아이, 주인공 찾아도 뭐, 만날 마찬가진데….' 이런단 말입니다. 하하하. 안 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겁니다, 다.

공부할 때에 자기가 자기한테 뭐, 테스트해 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자기를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나 알기 위해서 그 용도에 적합하게 오는 것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럴 때는 '아하, 요것도 그놈이 또 이거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그냥 재깍 그건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아이고, 요런 게 또 왔으니 이거를 어떻게 방지를 해야 하나. 주인공을 아무리 찾아도 이거는 안 돼.' 하고는 그냥 물러서 버리니 아이구, 이거 정말이지 허구장천 "못났든 잘났든 널 믿어라, 널 믿어라. 죽는 것도 거기고 사는 것도 거기다." 이래도 그렇게 안 들어가나 보죠? 그러니까 한 발짝도 실천에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진짜로 화살을 쏘려면 정의 화살을 쏴야 될 텐데, 여기 쐈다 저기 쐈다 이러니까 이게 맞춰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지금 금방 죽는대도 '흥, 네가 끌고 다니는 네 몸뚱이 죽인다 해서 내가 외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그냥 죽일 테면 죽이고 살릴 테면 살리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그냥 놔 버린다면 되는 건데, 그렇게들 그냥 모두 작척(作隻)을 하고 붙들고 늘어지니 글쎄, 그놈의 게, 그게 인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 자식지간도 그렇게 붙들고 애지중지하고 그러는 게 모두가 인과가 되는 거라구요, 오히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려면 아예 그냥 놓고, 이렇게 줄을 잡고 그냥 툭툭…, 딴 데로 가면 툭, 딴 데로 삐뚤어지게 가면은 툭, 이렇게 마음의 줄로다가 잡아야 마음이 잡히지 아, 이건 실질적으로 실체를 말로다가 잡으려고 그러니 그게 몸이 잡아집니까, 네?

마음의 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설이 돼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방에도 전구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의 스위치만 누르니까 죄 불이 들어오네요. 허허허. 그러니까 내 한 식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다 밝게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밝게 켤 줄을 모르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것만 법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법이니까 양면의,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다 놓아서 같이 굴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믿음이 진실하다면 이런 게 와도 거기 놓고, 저런 게 와도 거기 놓고 하면서 그 중심의 중용을 잘하면 그게 굴림이죠. 그게 수레공법이에요.

사람이 머리로만 한다면 그 진실한 마음이 전신으로 하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그 권처(權處)에서 바로 두뇌로 올라가는 게 누진입니다. 누진으로써 몸뚱이 사대(四大)에 하달을 해서 바깥으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심성 과학. 종합 심성 과학입니다, 이게. 모두가. 얼른 쉽게 말하자면, 참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캠핑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못 하면 후일에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말리고, 나만 말리면 좋은데 또…. 내가 그 도리를 알게 되면 '위로는 묵은 빚을 갚으며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나 내가 못 한다면 위로 묵은 빚도 갚을 수 없고 햇빛도 줄 수 없습니다. 묵은 뿌리의 그 썩은 것도 자를 수 없고 아래 자녀들의 그 뿌리가 싱싱하게끔 도와줄 수도 없다 이겁니다. 내 뿌리가 썩었는데 남의 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묵은 빚도 갚고 햇빛도 줄 뿐 아니라 스스로 세세생생에 권도(權道)를 가지고 여래장이 돼서 참, 수레공법이나 평등공법이나 모든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항상 주인공에다가 놓고 편안하게 마음먹어라.**
> **자기가 사는 게 그 주인으로 인해서 심부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인데**
> **심부름하는 놈이 뭘 그렇게 주인이 하는 일에 참견을 하고 걱정을 하느냐.**

실제로 우주를 볼 수 있나요?

질문 마음공부를 하면 생각으로 기억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주의 모습을 다 볼 수도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공부를 하시라고 이끌어 드리는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실천을 하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선장과 현재 자(子), 나가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그거를 잡고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보는 사이 없이 볼 수 있고, 듣는 사이 없이 들을 수 있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상대방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 각계각층 가지각색의 모든 종류를 같이 이렇게 응(應)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안으로 봐야 보는 것이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심안으로 봐야 하고, 심안의 귀로 들어야 하고, 심안의 신족통, 즉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는 사이가 없이 알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안의 내 선장의 주장자를 딱 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둥을 잡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심안의 기둥은 하늘과 진리가 상통이 돼 있고 세상과 모두가 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잡지 않는다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깜깜하죠. 깜깜하니까 50% 반쪽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100%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고,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도리를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 너를 믿고 너를 깨달아라. 네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네 나무에서 꽃이 필 수도 없거니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또한 제 나무에서 무르익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자기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니까 공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공생(共生)이면서 공심,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이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세계가 다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한 줄 알고, 겸손해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력을 길러라 이거지,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하고 경이나 읽고 이론이나 캐고 이러려면 뭣 하러 여기 이렇게 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각양각색의 종교가 전부 타의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외국에 다니면서도 보았는데,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자의에서, 제 뿌리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타의에서, 꼭 이름, 형상, 이런 걸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줄, 그 줄을 바로 반야줄이라고 일컬어 말합니다. 이 반야줄을 잡지 못한다면, 깜깜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못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갖다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흙탕물이 나와서 이거를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 내가 아무리 방방방방 뛰어도 그 물을 맑은 물로 대치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안의 그 내면세계를 꼭 믿고 '그 한 구멍밖에는 없다, 나고 드는 생사가 한 구멍밖에 없어서 그 구멍에서 모두가 나오는 거니까 그 구멍에다 다시 입력을 하라' 합니다. 그런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현실에 자꾸 입력이 되면 그것이 새롭게 모두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미타경 말씀 중에 이런 게…

질문 아미타경에 보면 "아미타를 만나게 되면은 동방을 비춰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잡히지가 않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변 동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귀신 방귀씨는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음이 내가 부와 자가 상봉을 하게 되면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보면 보는 대로 시가 읊어지고 들으면 듣는 대로 시가 읊어지고 그러는 거지마는, 그거를 머리로써 고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내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방귀씨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죠.

이것이 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 안다 하더라도 그저 안다는 것도 거기다 놓고, 부처님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 다 안다 하더라도 아는 거는 나중에 깨달아서 써먹게 하고, 그것조차도 모든 걸 거기다 놔야 합니다. 거기 맡기고 '알아도 네가 알지, 나는 관리인이요 시자일 뿐이야.' 하고선 거기다 다 놔 버리세요. 몽땅, 하나도 없이, 나 죽고 사는 것까지도 다 놨을 때에, 다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될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소리가 그게 진짜로 법이 되고 진짜로 다가 그게 그대로 한데 떨어지지 않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기 위해서 한 번 죽어야 하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더불어 죽어야 하고, 또는 더불어 나투기 위해서 세 번 죽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아, 내가 이렇게 아는 것조차도 그 주인공,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내 자성불이라는 것이 바로 그대로 심봉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맷돌과 같지 않은가.' 하고 모든 걸 바로 거기다가 자꾸 되넣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갈려 나올 테니까요. 그 작업을 한번 해 보세요. 한 일 년만 그 작업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모든 거 거기다 놓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한부 말기암 신속 소멸되는 의료기기임상실험 경제적 도움주실 분

허리·무릎·목·엉치·다리

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

부항 여러가지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일회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즉각 효과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발명특허의 세상에 유일한 원리방식의 척추 · 골반 ·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말기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엔 암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 세분의 좋은 사례담

사례1 > 식도암과 간암 환자분 홍천에 사시는 65세 남성 5월 12일 삼성병원에서 항암제 주사를 맞으시고 의료기 체험 하러 오셨습니다. 체험해보시고 몸이 편하기는 하나 어떻게 암치료가 되겠는지 못 믿겠다며 의료기 값 중 절반을 주고 다음에 확실히 좋아지면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싸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항암제 주사를 맞고 그렇게 처음 편하게 잠을 잤고 몸이 천근만근하여 아침에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거뜬하게 일어났다며 믿음이 가신다며 다시 오셔서 의료기를 사 가셨습니다.

사례2 > 남양주시 사는 60세 여성은 2019년 1월 폐암 말기진단을 받고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폐에 물이 7리터 이상 차서 병원에 입원해서 100일간 물만 빼고 퇴원한 후 우리가 만든 '척추근육강화기 (의료기)를 꾸준히 활용하여 현재 병원 의사의 "매우 안정적이다" 라는 진단을 받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3 > 2019년 10월 50대 여성이 "병원진찰 결과 간에 암이 세개 발견되고 대장암은 너무 커버려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저희가 특허 발명한 위 의료기를 구입, 한달간 사용 후 간암은 완전히 소멸되고 두달쯤 사용하던 중 어느날 항문으로 피고름이 쏟아져서 무서운 마음으로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상황을 말씀드리니 "검사 결과 암이 죽어서 거의 다 피고름으로 쏟아졌다"며 이제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 하여 수술 후 완치됐습니다. 처음 저희 의료기를 불신하던 그분의 형제자매 6남매 모두가 의료기를 구입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주 전화하십니다.

의료기 개발자인 저는 "모든 암질환은 대부분 척추변위가 직접 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척추근육강화기(의료기)는 변위된 척추를 원래 척추로 교정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척추가 좋아지면 항암제부작용도 말기암 통증도 해소됩니다.
※ 질병 퇴치연구를 할수 있도록 도움주실 분 찾습니다.

✲ 소자본 지점모집 ✲

NAVER 척추근육강화기 ▼ 검색

예약 010-6575-7866